



제주지역 주·정차 뺑소니 피해신고 폭주

지난해 6월 3일 시행 후 1년여만에 7473건 접수
“가뜩이나 바쁜데”... 사고 현장선 업무과중 호소
사고 빈번한 주차장 처벌 제외돼 실효성도 논란

운전자 없는 차량에 물적피해를 입히고 도망가는 뺑소니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주·정차 뺑소니 방지법’이 지난해 시행된 가운데 제주에서 이와 관련된 신고가 1년 3개월 사이 무려 70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일부터 차량을 운행하다 운전자가 없는 다른 차량에 물적피해를 입히고

도주할 경우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아울러 경찰은 주·정차 뺑소니 신고가 접수되면 차량 블랙박스나 CCTV 분석 등을 통해 가해자를 추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벌이 시작된 시점부터 올해 9월 3일까지 1년 3개월 동안 제주에서 신고가 접수된 주·정차 뺑소니 사고는 7473건(2017년 3436건·올해 9월 4일 기준 4037건)에 이른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교통경찰들은 가뜩이나 바쁜 상황에서 주·정차 뺑소니 사고까지 겹쳐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제주경찰 1인당 담당하는 교통사고 건수는 2.7건(전국 평균 1.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고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서의 한 교통경찰관은 “주·정차 뺑소니 사고가 접수되면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처럼 CCTV나 블랙박스를 몇 시간 동안 분석해야 한다”며 “특히 길게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이를 처리하는 동안 주·정차 뺑소니 등 또 다른 사고들이 수십 건 쌓이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토

로했다.

반면 처벌 기준이 도로상에서의 사고만 해당돼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정차 뺑소니 대부분은 아파트 단지나 상가 주차장에서 발생하지만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주·정차 뺑소니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돼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처벌 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자체를 대폭 바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halla.com

제주시 도심서 일본군 포탄 또 발견

태평양전쟁 때 사용된 듯

제주시내 한복판에서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포탄(사진)이 또 발견됐다.

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시38분쯤 제주시 이호동 주택 공사장에서 포탄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해군 제주시지전대 폭발물처리반은 분석을 실시해 이 포탄이 태평양전쟁 때 일본군이 사용한 105mm 사출(射出)탄으로 추정했다. 이후 폭발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군이 이 포탄을 수거했다.

지난달 23일 제주시 용담동 공사현장에서도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포탄이 발견돼 해군에서 수거한 바 있다. 송은범기자

피서철 해양안전 저해사범 무더기 검거

제주해경, 13건 적발·입건

지난달 말까지 실시된 ‘하계 피서철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에서 해양안전 저해사범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46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등록 수중레저사업 등 1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선박안전법위반(과적) 1건, 레저기구 변경 미등록 1건,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2건, 수상레저기구 미등록 1건, 스쿠버용 공기통 재검사 미이행 7건, 무등록 수중레저사업 1건이며, 해경은 이날 중 각 업체 대표 등을 입

건한 후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 가운데 7곳의 수중레저사업장에서는 제주도내 공기통 검사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총 183개의 공기통을 재검사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안전검사 없이 사용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스쿠버업체가 공기통의 정기 또는 재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스쿠버 업체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송정경기자

소정방폭포 실종자 민관군 합동수색 총력

서귀포시는 지난달 22일 태풍 ‘솔릭’ 내습때 소정방폭포 인근 해안에서 실종된 관광객 수색작업에 민관군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4~30일에는 시 공무원과 송산동 자생단체가 육상수색에 나섰고,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수중수색과 해상수색, 항공수색을 벌여왔다. 또 29~30일에는 가파도와 마라도 일원에서 여객선을 활용해 해상수색을 벌였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제주해군기지전대, 스쿠버 관련 단체와 동호회, 제주도 어업지도선 등 민관군의 협조와 지원

을 받아 이달 3~5일 집중 수색작업을 진행중이다. 시 안전총괄부서를 중심으로 제주해군기지전대, 제주특별자치도 수중·핀수영협회, 서귀포시청 스킨 스쿠버 동호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서귀포시지회, 제주도 어업지도선 등 민관군이 협력해 검은여·서귀포항 일대를 수색중이다.

5일에는 제주해군기지전대 잠수반 4명, 제주특별자치도수중·핀수영협회 20여명, 서귀포시청 다이빙 동호회 10명, 제주도 어업지도선을 투입해 검은여·서귀포항 일대를 수색할 계획이다.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제주행 여객선서 40대 실종

4일 새벽 폭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에서 실종자가 발생해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13분쯤 목포항을 출발해 제주항으로 향하던 여객선 S호(1만5180t·승객 344명)에서 승객 이모(48)씨가 실종됐다

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함정과 헬기 등을 현장으로 급파해 실종자 수색에 나선 상황이다.

S호는 이날 오전 5시40분쯤 제주항에 입항했으며 이씨가 객실기를 반납하지 않고 소지품만 남겨둔 채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실종이 의심된다며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정경기자 jungkso@ihalla.com

성산읍 단독주택서 화재

4일 오전 3시52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여분만에 꺼졌다.

이날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택외벽 및 처마 일부가 소실됐다.

소방당국은 외부에 있는 보일러실 전원 콘센트로 빗물이 유입되며 전기적인 아크 등이 발생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계산서 12억원 허위 발급

40대에 징역1년·징유 3년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운 판사는 10억원이 넘는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업체 이사 김모(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업체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 2015년 2월 A업체 대표 K씨와 공모해 950만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 2015년 12월까지 98회에 걸쳐 12억19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다. A업체는 김씨의 사건과 별도로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C수산업체를 상대로 21차례에 걸쳐 7억6276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세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범행횟수가 많고 공금가액 합계도 거액”이라며 “다만 A업체 대표가 범행을 주도했고 김씨가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현숙기자



자전거 타기 좋은 날 무더위가 한 풀 꺾이며 제법 선선한 날씨를 보인 4일 한 무리의 자전거 여행객들이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제주시 용담해안도로를 질주하며 제주의 초가을을 즐기고 있다.

“벌초·농번기철 농기계 사용 주의하세요”

제주소방 ‘안전사고주의보’
3년간 332건 발생·6명 사망
경운기·예초기·파쇄기 등 순

제주에서 본격적인 벌초와 농번기철을 맞아 예초기와 파쇄기, 경운기 등 농기계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일부터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해 유관기관·단체와 연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2015년 117건, 2016년 123건, 지난해 92건 등 모두 332건이며, 이중 상당수는 벌초철과 농번기가 겹친 9~11월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농기계를 구분해 살펴보면 경운기가 117건(사망 5명·부상 110명), 예초기 34건(부상 34명), 파쇄기 31건(사망 1명·부상 30명), 기타 150건(부상 147명)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17일 오전 9시49분쯤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의 한 농로에서 A(74)씨가 경운기를 타고 가던 중 경운기가 전도돼 사망하는 사고

가 발생했으며, 2016년 10월 6일 오전 10시20분쯤 제주시 조천읍 대를리에서는 B(58·여)씨가 예초기로 제초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눈에 유리 파편이 들어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제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예초기를 사용할 때는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 중에는 회전부에 신체가 접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119로 신고해 응급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고, 지시내용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송은범기자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임의번호 2018-GN1-11-0011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임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시청 ● 제주시청

시외버스터미널 오라출소

한리체육관

국내보청기 (국제보청기)

국내수영장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벨톤보청기 제주점

- 신규 오픈 기념 행사
-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지원
- 난청 전문상담
- 보상판매, 보청기 무료체험
- 신제품 1+1 특가, 전품목 할인

1개월 착용 해보고 결정하세요!

725-2544
제주시 중앙로 71, 2층(중앙로 사거리)

임의번호 2017-GN1-40-0063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원: 벨톤보청기 제주센터

고개속인 남성들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20627-중-30735호

발기부전치료에 쓰이는
※원터치자동약물주입기의 장점※

- 사용 및 후대가 매우 간편하고 원터치로 약물이 주입되어 통증 및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 기기에 쓰이는 치료약물은 고효율, 당뇨, 노화에 의한 발기부전 및 암, 수술 후 발생한 발기부전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 약물주입시 대부분의 남성들이 발기가 이루어져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원터치 자동주입기에 넣어 사용하는 발기부전치료약물은 부적절하게 사용시 발기가오래 지속되는 부작용이 있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은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기부전클리닉 ▶조루약물주입법
- ▶전립선클리닉 ▶남성회성기질환 ▶요로결석

※ 남성고민 상담 ※

연세포르테비뇨기과원

☎ 064) 724-7575

터미널 맞은편 제주시은행 2F